

외도위기부부의 용서를 위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한 숙 자* 정 해 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외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 외도자의 회개와 고백, 그리고 부부의 용서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상담자가 지녀야 할 외도에 대한 관점과 상담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용서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받아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표현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외도위기부부의 용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용서를 너무 일찍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공감과 경청, 수용을 통해 상처입은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고 자각하며 수용하도록 인내를 가지고 돕는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치며 외도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런 단서들을 다루는 기술도 소개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상처입은 배우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주시기를 간구하도록 돕고 상담과정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상담해야 한다.

중심단어 : 외도, 부부, 결혼위기, 기독교상담, 용서, 고백

• 논문 투고일: 2010년 09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12일

* 한영신학대학교

** 한영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0년 10월 22일

I. 여는 글

해마다 많은 쌍의 부부들이 이혼하고 이로 인한 가족해체의 고통은 매우 크다. 이혼에 대한 여러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 부정행위는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주위에서 보면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예전에 비해 이혼한 가정이 늘고 있고, 특히 외도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를 교회 안에서도 종종 접하게 된다. 때로는 목회자 가정도 외도문제에서 완전히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상담과 심리학에서 외도상담에 대한 여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부부관계의 회복과 서로의 진정한 용서는 일반 외도상담의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처입은 배우자와 외도한 배우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외도위기부부의 진정한 용서나 부부관계의 회복은 힘들다.

근래에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갈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결하기위해 용서의 심리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외도위기에 처한 부부도 이 위기에 대처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아마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일반 내담자들보다 용서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¹⁾ 용서가 경건생활의 핵심이고 자신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믿지만 실제로 용서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힐 경우 용서의 정확한 의미 등 용서와 관련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상담자는 성경적 결혼관에 따라 외도와 용서문제를 이해해야 하고, 외도위기부부에게 용서를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외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기독교상담으로서의 상담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효과적이다.²⁾ 기독교

1) 이준행, “남편의 외도로 고통중에 있는 아내를 위한 해결중심 교회돌봄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대학원, 2007), 3.

2) 윤선자,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9), 168-178.

상담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외도를 이해하고 성경에서는 외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상담자는 외도에 있어서의 용서문제에 접근하는 일반상담이나 심리학의 상담방법을 분석하고, 기독교상담을 통해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외도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 외도상담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외도자의 회개와 고백, 그리고 용서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상담자가 지녀야 할 외도에 대한 관점과 상담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외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

1)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적인 결혼관의 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성경구절은 창 2:18-25절이다.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하와)와의 결혼 이야기를 취급하고 있는 본 기사는 하나님에 의한 만물과 사람의 창조와 에덴동산의 창설에 뒤이어 등장하고 있는데,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을 아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주례를 서시고, 부부가 되도록 선언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³⁾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하나이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했을 때, 음행 이외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그분의 답변 역시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관점에서였다(마19:3-9).

3) 손석태, 『창세기 강의』 (서울: 성경 읽기사, 1998), 44-45.

두 번째 관점은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결혼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에 은유적으로 대입시켜, 하나님은 남편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는 이러한 결혼-언약 관계에 파탄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적 결혼관계 -은유적 표현이 아닌- 에도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면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자라”(잠2:17). 여기에서 잠언기자는 젊어서 결혼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세 번째 관점은 모형론적인 것으로서,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남녀 간의 결혼관계(사랑/복종)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구속적 사랑과 교회의 그 분께 대한 복종을 보여준다는 것이다(엡5:22-33). 길성남은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바울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상적인 관계를 규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도 바울이 창2:24을 엡5:31에서 인용하되, 모형론적인 해석(typological interpretation)을 가하여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체성과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이며 신비한 연합을 표상한다고 보았다.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의 모습은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을 지향한다. 결혼은 인간에게 성적, 정서적, 감정적 만족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사회적 유대감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결혼은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질서에 순응하며,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입은 교회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게 한다. 결혼관계에서의 신실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 외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구약의 관점

성경은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지지한다. 이것은 구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4) 길성남,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6), 437-438.

가지이다. 최초의 인간 부부에 대한 기사(창 2:21-24)는 일부일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단 하나의 아내라고 표현한다(사 54:6; 렘 2:2).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스겔은 겐 16장에서 이스라엘을 선택된 단 하나의 아내로 보는 은유를 통하여 새로운 allegory를 제시하고 있다. 곧 그녀(이스라엘)가 은혜를 모르고 음행을 하는 추한 여자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남편으로 비유된다.⁵⁾ 그러므로 이러한 구약의 언급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잠 5:15-19). 하지만 이러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이스라엘은 일부다처혼을 선호하였으며, 다른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은 많은 처를 두었고, 중산층은 적어도 2-3명의 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⁶⁾

한편 간음은 구약성경에서 십계명(출 20:14) 뿐만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규정에 의해서도 중요한 범죄로 간주되었다(레 18:20; 신 22:22-24). 결혼생활의 불성실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흔히 우상숭배에 비유됨으로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신 22:22-24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간음한 남·녀 두 사람을 반드시 죽이도록 책임을 부과할 만큼 심각한 범죄였다. 그러나 간음은 심각한 범죄인 것만 큼이나 흔한 범죄였다. William Barclay⁷⁾는 유대교에서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로 여겨지던 죄가 없고, 또 간음보다 더 흔한 죄가 없었다는 것은 인간성의 역설(the paradox of human nature)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세 가지 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5) R.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이양구 역,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55-58.

6) 윤선자,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찬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 24-25.

7) William Barclay, *The Ten Commandments for Today*, 이희숙 역, 『오늘을 위한 십계명』 (서울: 컨콜디아사, 1998), 107-109.

그 중의 하나가 간음이었다고 지적한다(나머지 두 가지 죄는 우상 숭배와 살인이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간음행위란 개인적인 사사로운 경범죄가 아니라 엄격한 처벌이 수반되는 사회적인 범죄행위로서 우상숭배에 견줄만한 것이었다. 그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잠 7:22의 비유적 표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는 음행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미련함과 유혹에 빠진 결과가 도살된 소와 같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음행으로 인한 죄의 무서운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⁸⁾

(2)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셨다(마 5:27-28). 그 분께서 육체적인 성 접촉 뿐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음욕조차도 간음을 금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온전한 율법의 정신이 실제적인 간음 행위 이상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율법은 더 넓은 적용을 담고 있다. John Stott⁹⁾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금지명령에 내포된 뜻을 넓히셨다고 말한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고 단언하신 것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다. 사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하여 매우 실제적인 교훈(눈과 마음 사이의 관계)을 나타내신다. 눈을 통제하는 것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다(눅 31:1, 7, 9). 수치스러운 행실(실제 행위로서의 간음)에 앞서 수치스러운 상상(마음의 간음)이 일어나며 그에 앞서 눈의 방종(음욕을 품고 여인을 봄)이 일어난다.

본 단락의 후반부는 자연스럽게 이혼과 간음이라는 주제로 이어진다(마

8) 윤선자,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찬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 24-25.

9) John Stott, *Christian Counter-Culture*, 김광택 역, 『예수님의 산상설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95-96.

5:31-32).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 19:3-9에 나오는데, 후자는 전자의 관점을 더 상세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요지는 이렇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남편이 신 24:1-4에 제시된 이혼의 조건인 ‘수치되는 일’을 아주 자유롭게 해석하여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구절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허용한 규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래 의도하신 바(창 2:24)는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한 이유의에는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의 조항조차도 간음이 그 본성상 결혼관계를 이미 깨뜨린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혼이란 이미 깨어진 결혼관계를 인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⁰⁾

한편 이혼한 자의 재혼문제에서, 마태복음 5장 32절은 이혼한 여인과의 재혼문제를,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이혼한 남편의 재혼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로서 생계를 위해 재혼해야 하는 여인들의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과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

간음이라는 주제는 요 8:1-11에도 나타난다. 이 본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교훈은 예수님께서 간음죄와 관련하여 남·녀 간의 차이와 구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녀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만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다. 이는 당시 유대사회의 잘못된 관행 -간음죄의 처벌에 있어서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가혹한-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¹¹⁾ 두 번째의 교훈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Paul Tournier는 본문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하나의 반전을 제시한다. 그것은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의인 대 죄인의

10)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325-327.

11) Bruce Milne, *The Message of John. Here is Your King*, 정옥배 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5), 161-164.

구도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죄인(바리새인)대 용서받는 죄인(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구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¹²⁾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다른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간음죄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적인 동기의 문제이다. 둘째, 간음죄의 처벌은 남녀에게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라기보다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3) 신약의 관점

초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주된 공격은 복음이 도덕률 폐기론을 부추킨다는 것이었다(롬 3:8, 6:1 등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성적인 죄에 대한 통렬한 책망은 때때로 모세 율법의 요구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했다.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간음하는 자가 종말론적 심판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전 6:9-10; 히 13:4; 계 21:8). 그 중에서도 고전 6:12-20은 인간의 육체적 성교가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전인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³⁾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음행을 절대 삼가야 하는 이유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8절). 성적인 죄가 ‘자기 몸에’ 죄를 가한다고 주장하는 이 구절의 문맥은 16절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육체적 결합’은 ‘인간의 ‘전 인격적 결합’의 대원리인데, 이러한 전인격적 결합을 파괴시키는 음행은 ‘자기의 전 인격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여기에서 바울은 몸을 지칭할 때 ‘썩어 없어질 육체’로서의 사룩스(σάρξ)를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 지체’를 뜻하는 소마(σῶμα)를 사용하여, 음행의 죄가 분명히 다른 죄들

12) Paul Tournier, *Guilt & Grace*, 추교석 역, 『죄책감과 은혜』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5), 165-167.

13) David Prior, *The Message of 1 Corinthians*, 정옥배 역,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132-134.

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⁴⁾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련성 속에서 몸의 행실이 사람들의 미래의 궁극적인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며(15절) 또한 그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19절). 더욱이 신자의 몸은 부활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 거할 것이며(14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20절)는 사실들을 안다면 어떻게 신자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여 창녀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는가?(16절)¹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간음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에 대한 처벌의 책임이 부과되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취급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신앙공동체 안에서 부부 간의 성적 순결이 유지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간음이란 단지 외적인 실행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적 동기의 문제임을 선언하시면서, 당시 유대사회의 관행과는 달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대로의 결혼의 모습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신약에서는 간음이 그리스도와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졌다. 몸의 행실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표현이며, 그리스도인이 그 분의 사역의 결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신분에 대한 자각의 지표가 될 뿐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인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2. 외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릇된 신념과 외도에 빠지는 이유

이준행은 Vikler가 제시한 그리스도인들의 외도에 대한 그릇된 신념에 대

14)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17』 (서울: 성서아카데미, 1999), 487.

15) 이한수, 『바울 서신의 메시지』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153-154.

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재해석하였다.¹⁶⁾

첫째, 대부분의 외도는 성적 욕망 때문에 시작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정서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성적인 외도로 옮겨간다. 근래에는 남성외도에서도 성의 쾌락만을 추구하기보다 친밀감이라는 정서적인 면을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¹⁷⁾

둘째,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외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에 외도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바람이지 실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누구라도 외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셋째,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에게 외도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외도를 저지르기도 한다. 외도한 남편의 경우,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외도의 이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¹⁸⁾

넷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듣게 될 때 외도를 멈출 것이라는 생각이다. 외도에 빠진 사람은 외도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구성해 놓고 있기에 성경의 가르침으로 대면하는 것에 쉽게 외도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외도 논리를 가지고 저항하고 더욱 견고하게 자기 보호벽을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외도를 멈추고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돕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도에 빠진 배우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외도는 언약 결혼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죄이지만, 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외도하는 배우자는 용서의 대상이지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지나치게 자기중

16) 이준행, "남편의 외도로 고통중에 있는 아내를 위한 해결중심 교회돌봄프로그램", 11-14.

17) 나윤경·박은실·강미연·서정미, "기혼자들의 '외도'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가족, 그 평생교육학적 의미",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4호(2009): 387-412.

18) Henry A. Vikler, *Broken Promises*, 김의식 역, 『외도상담』 (서울: 두란노서원, 1997), 140.

심적으로 반영한 생각이다.

여섯째, 남자의 외도상대는 언제나 자신의 아내보다 더 육체적으로 매력적일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다. 기독교인에게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외도는 그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¹⁹⁾

일곱 번째, 외도한 배우자는 상처 입은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잘못된 생각이다. 외도상대에 대해서는 낭만적인 사랑을, 배우자에게는 헌신적인 사랑을 기대한다.²⁰⁾

여덟 번째, 외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이다. 외도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도하는 배우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며 신실한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적절한 대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

아홉 번째,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경우 이혼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외도가 모두 이혼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약 60-70%의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지고 나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한다.²²⁾

위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건하다면 외도의 가능성도 줄어들겠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절대 불륜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진지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외도에 빠지게 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²³⁾

첫째, 외도는 우리가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19) Emily M. Brown,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Treatment* (New York: Brunner/Mazel, 1991), 19

20) 이준행, “남편의 외도로 고통중에 있는 아내를 위한 해결중심 교회돌봄프로그램”, 37

21) Vikler, *Broken Promises*, 23.

22) D. K. Snyder, D. H. Baucom & K. C. Gordon, *Getting Past the Affair: A Program to Help You Cope, and Move On-Together or Apart*, 권정혜 · 오현주 · 정정숙 역,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학지사, 2010), 38-39.

23) Gary R. Collins, *Family Shock*, 안보현 · 황희철 공역, 『가정의 충격』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67.

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언제든지 유혹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우리 마음은 자연히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합리화가 절대로 외도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둘째, 대부분의 외도는 아주 서서히, 대체로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된다. 대부분 외도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발전하기 때문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깊은 수렁에 빠져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도덕적 감각의 상실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외도가 깊이 발전할 때까지 그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된다. 즉 자신이 어떤 지경에 처해져 있는지 상황 파악이 되질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도덕적 기준이 파괴되고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셋째, 외도에 빠지게 되는 내적인 진행 과정 중 많은 것들은 무의식중에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심리발달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자아의 미성숙과 심리적인 발달결핍으로 병리적인 관계에 빠지고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이 결혼 후에 외도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외도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이루어진다.²⁴⁾ 따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이라든지 헌신으로 그것들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에게 끌리고 있음을 의식할 때쯤에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성경적 확신들(자신이 것처럼 열심히 믿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넷째, 사단은 우리의 행복과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간증을 파괴하기로 작정한 자이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 할 것이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불륜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간증은 물론이요, 우리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 및 안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외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24) 윤선자, “남편이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 8.

다닌다(벧전 5:8).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 견고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사단이 울무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유혹적인 관계나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한다(벧전 5:9).

3. 외도한 배우자의 고백과 용서의 촉진

하재성은 외도상담에 대한 연구들이 외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과 관계적 환경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어떻게 다시 용서와 화해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의 요령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엔 죄와 벌,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신학적 관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특히 남편외도의 경우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성의 관계중심적이고 타인을 돌보아주고자 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칫 상담자들이 부부관계회복의 의무를 여성에게만 부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관점을 가진 상담자는 상처 입은 여성으로 하여금 강요된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을 가도록 자율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상담자는 상처 입은 여성배우자가 충분히 자기표현을 하고 자율성을 회복한 이후 신앙과 양심의 인도를 따르도록 상담자는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결국 하재성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 배우자가 상담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고 자율성을 회복한 이후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²⁶⁾

외도에 대해 기독교상담적으로 접근할 경우 대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그것은 외도에 대한 회개와 고백, 그리고 용서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상담자는 외도를 고백하고자하는 외도자가 아직 외도사실을 모르고 있는 배우자에게 고백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에

25) 하재성, “남편의 외도와 여성의 관계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회, 「복음과 상담」 제14권 (2010, 5): 265-279.

26) 하재성, “남편의 외도와 여성의 관계성”, 274.

근거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외도한 배우자의 고백

필자의 ‘이혼상담’ 수업 중 논의가 된 한 외도사례가 있었다. 본 사례는 한 남성이 아내 모르게 내연녀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십 수 년 동안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담임목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차마 아내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받을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또 그 아내가 안다한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결혼의 의미와 언약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옳은 방법이었을까? 아니면 아내에게 사실을 알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 만약 외도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에 대해 고백하고자 한다면 상담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고백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예를 들어 ‘고백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적어도 6개월 이내에 감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건강치 못할 경우, 외도 사실이 결코 용서되어지거나 잊혀 질수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배우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가진 상담자는 진실한 고백이 결혼생활을 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관계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외도의 원인이 밝혀지고 결혼생활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외도사실이 공개되어 결혼 생활 전반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진정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담자는 부부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격려한다. 비밀이 없게 될 때 부부는 처음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떠나는 것과 머무르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부는 취약함을 공유하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든든한 기초를 확립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외도사실에 대한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뉘우치는 배우자에게서 그 소식을 듣는 것이 후에 타인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두 사람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속아왔다고 느끼게 될 때 신뢰관계가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외도사실을 밝히고 나면 더 이상 외도가 발전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백을 통해 더 늦기 전에 배우자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외도상황에 대한 어떤 종결을 얻을 수 있다.²⁷⁾

상담자는 외도하는 배우자의 고백이 결혼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외도한 배우자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고백한 것이라면 상처 입은 배우자는 더욱 분노할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고백하고자 하는 외도자의 진정한 이유가 부부관계의 회복과 상처 입은 배우자를 진정으로 위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상담자는 외도고백을 듣게 되는 배우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고백할 배우자와 논의하고, 고백하고 나서 벌어질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고백여부는 외도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외도자가 고백하기로 선택한다면 외도자는 무엇을 고백할 것인지 적어보고 상담자와 그 자료를 훑어보는 것이 좋다. 자기연민이나 남을 비난하는 진술은 삭제하도록 도와준다.

2) 진정한 회개와 고백

외도한 배우자는 상처입은 배우자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분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고 뉘우치며(삿 21:6, 15; 욥 42:6),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27) 양유성, 『외도의 심리와 상담』 (서울: 학지사, 2008), 191-198.

돌아오며(시 51:13; 사 10:21; 호 14:1), 삶을 바꾸는 것(마 3:8, 행 3:26; 약 5:20)으로 정의 되는데, 두 가지 국면으로 구성된다.

그 첫 번째는 단회적인 것으로 구원과 관련되며(구원적 회개), 두 번째 국면은 평생에 걸쳐 반복되는 것으로써 성화와 관련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요 13:1-11의 기사는 이에 관한 좋은 예증이 된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목욕하는 것(단회적, 구원적 회개)과 발 씻는 것(반복적 회개)을 대비시키신다. 이러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신자라할지라도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가야만 한다.

본 외도한 배우자의 경우 그는 분명히 외도를 통해 결혼은 언약 관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분명히 죄로 인식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란 단순히 감정적 반응(외도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고 지적(외도행위를 죄로 인식함)이고 의지적(다시는 외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외도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관계 속에서의 일체성과 연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 일체의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온전히 자신의 도덕적·영적 책임으로 떠맡아야 한다.

그렇다면 외도사실을 고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다. 아마도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다(약 1:5). 둘째는 배우자가 지닌 신앙적 자원들을 고려하여 외도사실을 고백했을 경우 미칠 파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의 충격을 신앙적 차원으로 극복, 승화시켜 결혼관계를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위에서 예로든 사례의 경우, 기독교 상담자나 목회자의 경우 외도한 배우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외도의 피해자인 배우자의 신앙성숙을 감안하여 외도사실의 고백여부를 판단, 권면하여야 할 것이다.

4. 외도위기부부의 용서의 촉진

1) 외도의 과정

외도위기부부가 겪게 되는 과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Brown의 6단계 외도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도가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로 부부관계 중 생기는 불만족,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계속 쌓이며 틀에 박힌 생활을 답답하게 여기는 단계이다. 둘째, 배신의 단계로 답답하게 느끼던 부부 중 더 만족하지 못한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셋째, 외도가 드러나는 단계이다. 부부관계는 외도가 드러나기 이전과 현저하게 달라지고 이전과 같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넷째, 외도가 드러난 후 부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단계이다. 상처입은 배우자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모두 외도문제를 어떻게든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섯째, 외도를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다루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겪는 긴 회복의 과정이다. 이 긴 회복의 과정이 지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부부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였다. Brown은 마지막 단계인 여섯 번째 단계를 용서의 단계로 소개했다.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용서로서 용서는 치유의 핵심개념이며 결론이고 용서의 단계에 이르러야 치유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도로 위기에 처한 많은 부부들 가운데 마지막 6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으며 외형상 이혼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참된 용서에 이르지 못한 부부가 많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용서의 단계에 이르고 싶어하지만 무조건 용서하려고 애쓰거나 강요된 용서에 의해서 용서할 때 상처입은 배우자는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Emily Brown은 외

도위기부부들이 회복을 위한 아주 긴 과정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참된 용서가 찾아온다고 하였다.²⁸⁾

2) 외도위기부부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태도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입은 배우자가운데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했다고 말하거나,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용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태도에 대해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태도에 대해 양유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⁹⁾ 첫째, 용서는 한꺼번에 완전히 해야한다는 잘못된 개념이다. 정신적인 외상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완전히 용서해야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상처입은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할 때 용서는 상처입은 배우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개념이다. 용서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뒤범벅되어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셋째, 상처입은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할 때 상처입은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라는 그릇된 개념이다. 잘못된 행동은 용서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남아있다. 용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도한 배우자를 상처입은 배우자의 원한과 보복심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넷째, 상처입은 배우자가 용서할 때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

28) Brown,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Treatment*, 20. 노항규, “용서변화 현상모델에의 목회상담적 적용: 남편외도를 겪은 아내의 용서경험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2010), 59-50에서 재인용.

29) 양유성, 『외도의 심리와 상담』, 245-269.

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치고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 없이는 힘들다.

다섯째, 용서할 때는 당한 일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은 기억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처입은 배우자의 마음에서 구석으로 내미는 것일 뿐이다.

양유성은 또한 용서를 너무 급히 쉽게 하게 만드는 세 가지 흔한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³⁰⁾ 첫째, 용서는 상처입은 배우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좋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상처입은 배우자의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상처는 숨겨져 있을 뿐 치료되지 않는다. 둘째, 용서는 상처입은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상처입은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주고는 그 구실로 외도한 배우자를 상처입은 배우자 손안에 놓고 지배하려는 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셋째, 용서는 갈등을 제거시켜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즉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상처입은 배우자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억압된 분노로 우울증에 빠지게된다.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첫째, 상처입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고, 둘째, 용서는 선택이고 과정이며, 셋째, 용서는 강박관념, 분노 등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넷째, 용서는 고통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다섯째, 복수심과 벌주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여섯째, 용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³¹⁾

용서는 용서의 대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즉 외도한 배우자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입은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가능해진다. 외도한 배우자를

30) 양유성, 『외도의 심리와 상담』, 251-252.

31) 양유성, 『외도의 심리와 상담』, 253-254.

다르게 본다는 것은 외도한 배우자를 나쁜 면과 좋은 면을 동시에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용서는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적 감정으로 전환하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적 모습과 긍정적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가능해진다.³²⁾

3) 용서에 대한 접근

외도에 있어서의 용서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으로는 Gordon의 용서모형, Glass의 외상모형, 상호체계적인 접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상호체계적인 접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도에 대한 상호체계적 접근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부부의 관계치유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은 용서라고 할 수 있다. 상호체계적인 접근법에서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선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통합하여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통합해야 할 요인들은 공감, 겸허함, 관계에 대한 헌신, 희망 등이다. 이러한 촉진적인 요인들을 향상 시키는 동안 상담자는 부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즉 자기애, 수치심, 분노, 두려움과 같은 용서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합하는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요인이 변화하면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선 상담자가 용서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외도자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제안한다. 즉 외도자가 배우자에게 사과를 했는지, 시인을 했는지, 후회의 감정을 표현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기꺼이 변화시키려 하는 의지가 있는지,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에 협조적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상처입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외

32) 손운산, "수치심의 치료와 용서",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47집 (2009, 가을): 254.

33) 조혜련·장현우, "외도의 치료적 이해", 용인정신의학연구소, 「용인정신의학보」 제15권 1호(2008): 69-85.

도자의 이야기를 가까이 경청하려 하는지, 외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지, 결혼이 여전히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외도를 초래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는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와 용서를 하려는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처럼 부부간의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용서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용서의 과정 중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외도자가 배우자와 화해하고 싶은 욕구가 앞서 지나치게 자기변명이나 합리화로 일관하게 되면 상처 입은 배우자로 하여금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외도자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고통을 안겨 주었는지,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배신의 행위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상처 입은 배우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때때로 도덕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상담자는 용서가 한두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임을 부부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용서의 과정 중 여러 번에 걸쳐 낙담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담자는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부부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를 해주어야 한다.

상호체계적인 접근법에서는 외도로 인해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먼저 의사소통의 기술이다. 즉 나-진술문, 'XYZ' 공식이나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방법, 타임아웃 등의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때론 상처입은 배우자가 특정사실에 대한 질문을 감정조절하면서 차분히 할 수 있고, 외도배우자가 상대배우자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질문에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담자는 반복 훈련시킨다. 누가, 무엇이 어디서, 언제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되 어떻게 혹은 왜와 관련된 질문은 뒤로

미루도록 가르친다.³⁴⁾

또한 과거의 사건이 갑자기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플래시백현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용서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중 하나는 외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수많은 단서들과의 싸움이다. 상처입은 배우자의 플래시백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부부에게 설명한다. 상처입은 배우자가 플래시백현상을 경험한다면 이를 배우자와 함께 공유한다. 외도한 배우자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 당신이 너무 끔찍할 거란 거 알아. 우리는 함께 잘 이겨 나갈 수 있을거야”라고 말한다. 외도사건에 끼어드는 침투적 사고를 다스리는 방법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감정이 불편해질 때는 잠시 모든 것을 유보하기, 잡지 휴대하기, ‘이제 그만’의 사고중지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쁘고 편안한 생각들로 대체하는 자기암시 등의 방법을 설명한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처입은 배우자가 외도배우자에게 집요하게 추궁하는 듯한 모습보다는 외도자의 현재 행동에만 집중함으로써 신뢰를 다시 재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상호체계적인 접근법에서는 외도로 인해 문제가 생긴 부부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해법은 ‘용서’라고 한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용서가 외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부부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용서가 일어난 후에도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도덕적 잣대는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부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2) 한국 부부의 외도에 대한 용서

외도위기를 맞은 부부들이 외도로 인한 반응을 보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한국의 집단주의, 은폐의식, 체면의식, 한(恨)과 같은 문화의식, 그리고 특히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한 유교문화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통계의 결과를

34) 박현민, “배우자 부정에 의한 부부상담”, 서울가정법원상담위원회 교육세미나자료집, 2007.: 65-79.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외도를 다루는 상담에 있어서도 한국의 이러한 사회문화의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신환은 외도로 인해 상처입은 배우자의 외상적 반응이 원(怨)이고 이를 풀 수 없을 때 화병이 생기며 팔자나 운명과 같은 숙명론적 우주관을 사용하는 인지적 재구조화를 사용할 때 한(恨)이 발달한다고 하였다.³⁵⁾ 상처입은 배우자는 불행을 전생의 업보로 수용하거나 복수를 내세로 지언하면서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감정적 분리를 이루어낸다.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다른 대상에 마음을 붙여서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감정적 분리를 이루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정(精)을 사용한다. 이것이 외도 후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국 전통의 용서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의 집단주의문화는 대인관계갈등을 직역시하고 화목한 관계와 용서와 화해를 절대 선이라고 체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그는 용서는 화해가 아니고 용서의 목표가 대인관계의 회복이 아니어서,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사건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시각을 되찾고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는 것이며 가해자를 더 이상 징벌하려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용서에서 찾을 수 있는 영성으로 첫째, 타인에 대한 용서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찾을 수 있고, 용서에서 경건한 생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용서에서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친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용서의 영성이 배우자 외도 후 부부관계에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³⁷⁾ 결론적으로, 외도 후 부부의 용서에서 심리적 분리로 마음 조절에 급급한 상처입은 배우자를 신뢰와 애정의 관계로 전환하는 방법은 상처입은 배우자 자신과 외도한 배우자의 변화를 능동적 태도로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독교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상처입은 배우자가 현실의 변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당하는 희망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5) 반신환, “외도후 부부관계의 용서: 정서적 분리와 화해”, 한국실천신학회, 「실천과 신학」 제19호 상권(2009): 217-219.

36) 반신환, “외도후 부부관계의 용서: 정서적 분리와 화해”, 211.

37) 반신환, “외도후 부부관계의 용서: 정서적 분리와 화해”, 212.

5. 용서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1) 용서에 대한 성경적 의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용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메시지이며, 예수님의 가르침도 서로 용서하라는 권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서의 의미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성호³⁸⁾의 성경대사전에 의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용서의 의미를 카파르(kaphar/씻는다, 덮는다, 속량한다)와 나사(nasa/없앤다, 제거한다) 그리고 살라흐(salach/가계한다, 해방한다)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구약에서의 핵심적 의미로서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손수 제거해 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의 용서의 의미는 아페시스(aphesis/ 사면, 석방)로 대표되는데, 이는 부채의 면제, 형벌의 사면 등에 쓰여지는 말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강조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의 등 뒤로(사38:17) 또는 깊은 바다 속으로(미7:19) 던져 버리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시103:12),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사43:25; 렘31:34)으로 묘사된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용서의 완전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용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가 있다(출34:6; 느9:17; 단9:9).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차별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분은 결코 유죄를 무죄 화 하시는 분이 아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신약성경 역시 '용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달려 있으며, 이는 완전한 은총의 행위'(눅6:37, 롬3:25, 엡1:7, 엡4:32, 행5:31, 행13:18, 요일1:9)를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에게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38) 이성호, 『성경대사전』 (서울: 성서연구원, 2000), 823.

용서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다(마6:14-15, 막 11:25, 마18:35).

예수님은 자신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마18:21-35)와 ‘빛 탕감의 비유’ (눅7:41-42)를 통해 이미 자신의 공생애 속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죄 용서(빛 탕감) 사건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분은 죄의 용서는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기도문과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통해 모범을 보이셨다(눅23:34). 특히 주기도문의 간구 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6:12)의 말씀은 인간의 용서가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용서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용서의 의미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용서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본받아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골 3:12-13)하심과 같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M. Rubio는³⁹⁾ 인간의 모든 용서 경험은 용서의 궁극적인 근원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인관계적 용서와 신적인 용서는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39) M. Rubio, “The Christian Virtue of Forgiveness,” *Concilium* 184, no. 4 (1986): 80-94. 오오현, “기독교인 용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 8에서 재인용.

맥락을 떠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즉 대인 용서를 고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 특성 또는 타고난 심리적 기질이 아니고 전적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경험에 뿌리를 두는 종교적 태도인 것이다.

2) 외도위기부부의 용서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김준은 Worthington의 상처의 회상, 가해자와의 공감, 이타적인 선물, 용서의 실행, 용서의 지속단계를 거치는 5단계 용서모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⁴⁰⁾ 첫째,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둘째, 용서는 인간의 상처경험에 바탕을 둔 심리학적 이론에 의지하여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하여 다루어야 하며, 셋째, 죄와 연관되어 인간을 이해해야 하고 상처입은 피해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죄인으로 책임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용서의 동기가 자신의 고통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이고, 용서하지 않음은 또 다른 모양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며, 결혼관계에서의 진정한 용서는 상처 준 배우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일방적으로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용서가 부부간의 대화나 자녀양육의 문제와 같은 결혼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며 더욱이 용서가 간통과 같은 부부간의 치명적인 잘못들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어서 외도와 같은, 결혼을 위협하는 잘못들이 현재 진행 중일 때 용서의 문제는 상담에서 바로 꺼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⁴¹⁾ 결국 기독교 상담자는 외도상담에서 용서는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서두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서는 안되고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함을 인지해야한다.

40) 김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상담의 용서의 문제”,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5): 148-164.

41) 김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상담의 용서의 문제”, 154

노항규는 “용서변화현상모델의 목회상담적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⁴²⁾ 목회상담가가 부부의 참 용서를 촉진하는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도 용서를 강요하신 적이 없음을 명심해야 하고 용서는 상담에 의한 강요가 아닌 스스로 분노한 희생자의 역할을 포기할 때 참된 용서가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상담자가 성경을 사용하되 성급하게 성경구절을 제시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9-13)”의 성경구절을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경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구절로 인하여 억지로 용서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겉으로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참된 용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구절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주시기를 탄원하는 간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자는 배우자의 외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처입은 배우자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자각하고 수용하며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상담자가 상처입은 배우자의 감정을 공감과 경청으로 수용하면 상처입은 배우자도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수용할 수 있고 뒤이어 조용한 성찰이 따라올 때 참된 용서의 과정이 시작된다. 상처입은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감정든지 숨기지 않고 충분히 느낄 때 어린 시절의 가족과 해결되지 않았던 분노나 갈등에 대해 방어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외도한 배우자를 악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용서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윤선자는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에서⁴³⁾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린 사례를 들고 가장 고통스런 상태에서조차 자기초월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

42) 노항규, “용서변화 현상모델에의 목회상담적 적용: 남편외도를 겪은 아내의 용서경험을 중심으로”, 181-186.

43) 윤선자,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 168-178.

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도가 종결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때때로 경험하는 억울함과 분노 등이 미해결과제로 남아있으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죄의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성숙을 향한 겸손함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처입은 배우자의 삶에 대한 겸손함과 기독교상담자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서로 만날 때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위의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기독교상담자는 상처입은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때 용서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용서에 대한 이해는 분노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이해해야한다. 외도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고통스러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리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거짓 용서를 발전시키므로 기독교상담자는 공감과 경청을 통해 상처입은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고 자각하며 수용하도록 인내를 가지고 돕는다. 용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용서를 너무 일찍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입은 배우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주시기를 간구하도록 돕고 상담과정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상담해야 한다.

III. 닫는 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지켜져야 하며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결혼언약에 담겨 있다. 기독교상담자는 이를 어기는 외도가 죄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외도상담에 접근해

야 한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하는 성경말씀의 내면화는 외도위기상황에서 상처입은 배우자나 부부를 지탱시켜 주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본받아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표현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외도부부의 용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용서를 너무 일찍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외도한 배우자와 그 외도자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입은 배우자를 정죄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간구하도록 돕고 상담과정에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상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상담자는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를 통해 결혼약관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죄로 인식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외도자가 상처입은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시인하고 사과와 후회의 감정을 표현하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돕고, 한편으로 상처입은 배우자가 자신의 분노감정을 충분히 자각하고 표현하며 수용할 때까지 공감과 경청, 수용을 통해 기다린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치며 외도를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고통스런 단서를 다루는 기술도 소개한다. 외도위기부부의 용서는 매우 긴 여정임을 인식하고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입은 배우자와 외도한 배우자가 서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은 외도위기부부가 용서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길성남.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6.
- 김 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5): 146-167.
- 노항규. “용서변화 현상모델에의 목회상담적 적용: 남편의도를 겪은 아내의 용서 경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2010.
- 박현민. “배우자 부정에 의한 부부상담”. 서울가정법원상담위원회 교육세미나자료집, 2007.: 65-79.
- 반신환. “외도후 부부관계의 용서: 정서적 분리와 화해”. 한국실천신학회. 「실천과 신학」 제19호 상권(2009): 211-230.
- 손석태. 『창세기 강의』. 서울: 성경 읽기사, 1998.
- 손운산. “수취심의 치료와 용서”.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47집(2009, 가을): 253-278.
-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 양유성. “외도의 원인과 유형분석”. 서울가정법원상담위원회 교육세미나자료집, 2007.: 45-64.
- 양유성. 『외도의 심리와 상담』. 서울: 학지사, 2008.
- 오오현. “기독교인 용서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0.
- 윤선자.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9.
- 이준행. “남편의 외도로 고통중에 있는 아내를 위한 해결중심 교회돌봄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대학원, 2007.
- 이한수. 『바울 서신의 메시지』.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17』. 서울: 성서아카데미, 1999.
- 조현우·장혜련. “외도의 치료적 이해”. 용인정신의학연구소. 「용인정신의학보」 제15권 1호(2008): 69-85.
- 하재성. “남성의 외도와 여성의 관계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4권(2010,5): 262-282.
- Barclay, William. *The Ten Commandments for Today*. 이희숙 역. 『오늘을 위한

- 십계명』. 서울: 컨콜디아사, 1998.
- Brown, Emily M.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Treatment*. New York: Brunner/Mazel, 1991.
- Collins, Gary R. *Family Shock*. 안보현·황희철 공역. 『가정의 충격』.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De Vaux, R.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이양구 역.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Milne, Bruce. *The Message of John. Here is Your King*. 정옥배 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5.
- Prior, David. *The Message of 1 Corinthians*. 정옥배 역,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 Rubio, M. “The Christian Virtue of Forgiveness.” *Concilium* 184, no. 4(1996): 80-94.
- Snyder, D. K., Baucom, D. H. & Gordon, K. C. *Getting Past the Affair: A Program to Help You Cope, and Move On—Together or Apart*. 권정혜 · 오현주 · 정정숙 역.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학지사, 2010.
- Stott, John. *Christian Counter-Culture*. 김광택 역. 『예수님의 산상설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Tournier, Paul. *Guilt & Grace*. 추교석 역. 『죄책감과 은혜』.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5.
- Vikler, Henry A. *Broken Promises*. 김의식 역. 『외도상담』. 서울: 두란노서원, 1997.

【 Abstract 】

Christian Counselling Approach for Forgiveness of
Couples on the Verge of Extramarital Affairs

Sook Ja Han & Hae Soon Jeong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ible sees extramarital affairs, and how christian counsellors look at the affairs and give advice to troubled couples, based on the repentance and confession of spouses who had affairs, and forgiveness between such couples.

Forgiveness is a human behavior that follows the God's unconditional love and blessing toward human beings. However, it is never easy to forgive each other between a couple who, or at least one party, had an extramarital affair, and thus christian counsellors should refrain from urging or forcing hasty forgiveness. Counsellors patiently help heartbroken couples fully express their emotion, and recognize and accept their situation through emphasizing, listening and accepting their emotion. In the course of the process, counsellors introduce techniques, such as how to communicate and how to address reminders that trigger bad memories about spouses' affairs. Christian counsellors are not responsible for punishing a spouse who had an affair on behalf of the other, but humbly praying to God to forgive their unforgivable sins and praying to the Holy Spirit to participate in the counselling sessions to help the couples.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ouple, marriage crisis, extramarital affairs, forgiveness